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제34회 호렙산 기도회

6월 6일(월)~7월 15일(금)
매일 새벽 4시 45분



미국 연합감리교회 버지니아 연회, 광림교회 방문

샤르마 D. 루이스 감독 2·3부 예배 설교로 성도들 큰 은혜 받아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UMC) 54개 연회 중 두 번째로 큰 연회인 버지니아 연회의 샤르마 루이스(Sharma D. Lewis) 감독 일행 6명이 광림교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루이스 감독은 15개 연회로 구성된 동남부지역(South Eastern Jurisdiction)에서 흑인 여성 최초 감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버지니아 연회에는 1,300여개가 넘는 교회가 있으며, 한인 목회자만도 90여명에 이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동남아시아 선교파트너로 광림교회와 협력하기를 바라며, 광림교회와 한국 기독교를 이해하고자 많은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김정석 감독과 함께 JSA를 방문하여, 한반도의 현실과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를 방문하여 이철 감독회장과 면담하고, 서울남연회 본부, 미연합감리교회 선교국 아시아 사

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버지니아 연회가 선교 하려는 베트남에 이미 선교를 시작한 다른 기관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며 선교전략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루이스 감독은 광림교회를 방문하여 큰 감명을 받고 교회를 돌아보며 광림교회의 역사와 성도들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중에도 성도들이 교회를 찾으며 신실하게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 속에서 미국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라며 방문 소감을 밝혔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자(Walk by Faith)

방문의 절정은 광림교회 2, 3부 예배였습니다. 루이스 감독은 ‘믿음으로 걷는 자’라는 설교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광림교회의 환대와

성도들을 통해 다시금 큰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다음날 연세대학교와 감리교신대학교를 방문하여, 한국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교육의 역할과 열매에 대해 나누며 미국 교회의 성장을 위해 많은 한국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JSA를 방문한 UMC 일행

목회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기회를 만들기로 하고 학생들에게 UMC 목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세계선교의 네트워크 확장 및 협력

광림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떻게 교회가 세계 기독교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하며 선교할 것인가 고민해왔습니다.

이번 루이스 감독의 한국 방문을 통해 UMC 버지니아와 협력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광림교회는 블라디보스토크 미션센터와 잠비아 미션센터 등도 미연합감리교회와 여러 선교단체들과 협력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선교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선교 전문가와 협력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창세기 3장 9절)

아담은 인간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첫 번째 특성은 생명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간은 흙으로부터 생명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적 존재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책임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고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린다’는 통치와 지배의 개념이 아니라 자유와 특권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 만물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죄에 노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9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결코 정죄를 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또한 죄를 들추고자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곧 은총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새로운 기회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3-9절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첫째, 은총의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한 물음입니다.

부끄러움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담이 숨어 있는 장소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상태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즉 “네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탐욕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물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신앙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10절)라고 대답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왜 두려운지는 몰랐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지만 왜 두려운지는 잘 모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 되었을 때 인간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느낀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의 단절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를 들추시고 정죄하고,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정직성을 요구하시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물음은 언제나 정직성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죄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도 자신의 죄에 대해 하와가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12절)고 말합니다. 이는 무책임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자신의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곧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정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결국 하나님을 탓하는 무책임하고 회피하는 존재, 변명의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물음은 우리의 무책임함과 부정직함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즉 “무엇으로 인해 두려워하느냐?”라는 물음 앞에서 우리의 대답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에”가 되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13세기 도미니크회 수사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책임함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용서를 받는 가장 빠른 길이며,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건강한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 나의 삶을 주께 드리고 주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빛 가운데로 부르시는 초청의 물음입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물음은 빛 가운데로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이자 아담에 대한 관심이며, 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자 하시

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밝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부분을 숨기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 더 죄악 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또 다른 죄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죄와 단절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단절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잠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며 부끄러움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근원적인 욕망과 죄악 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무책임한 모습도 드러납니다. 이렇게 추한 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시고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 내십니다. 물론 그들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라버리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무화과나무 잎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어 그들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가려주십니다. 이는 더 이상 부끄러움으로 인해 숨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 숨어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 어두움 가운데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죄악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실패와 비참함의 모습들을 주님의 강한 빛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거룩하시게 주님을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희생과 겸손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장로취임예배〉 5월 15일 광림교회에서 열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으로 헌신할 6명의 장로취임예배가 5월 15일 주일 저녁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2022년 광림교회 장로취임예배는 광림의 성도들과 감리교단 예배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석 담임목사의 사회로 거룩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예배에서 김성철 목사(강남지방감리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장로들을 축복하며 기도했고, 갈릴리 성가대는 ‘축복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 철 감독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대 감독회장)은 ‘위대한 제자들’(마 16:21~24)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문을 여는 교회이다. 광림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신앙고백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의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순종하며 성령의 은총을 입고 위대한 제자로 변화되었다. 고난의 시대를 복음의 생명을 밝히는 시대로 만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오늘 세워진 광림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쓰임 받고 위대한 제자로 주님을 섬기기를 기도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예배에 이어 진행된 장로 취임식에서 신범식(청장년선교 위원장), 우형진(사랑부 위원장), 최제한(사회사업 위원장), 고희동(고등교육 위원장), 배경호(유년교육 위원장), 윤완선(청년선교 위원장) 장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과

의무에 충실하고 교인에게 모범이 되며 선교와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답을 하고 취임안수식을 거행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평생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시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겻세마네 동산의 돌로 만든 반지를 끼워주고 취임패를 증정했다. 광림의 각 기관 대표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장로들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최현규 감독(서울남연회 제15대 감독)은 축사를 하고, 김성철 감리사(강남지방)는 대표기도를 하였다. 취임장로들은 교회에 예물을 봉헌하였다.

배경호 장로는 취임장로를 대표해 “장로취임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김정석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듯이 저희 6명의 장로는 충성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담임목사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맡겨진 직임을 다하고 늘 순종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벧전 5:1)

유병권 기자

포토 뉴스



나사렛 성전 봉헌
5월 22일 나사렛 성전 봉헌 테이프 커팅식이 있었다.



로페카 중창단 발표회
5월 21일 로페카중창단(미가엘 성가대) 발표회가 사회봉사관에서 열렸다.



납으로 만든 현금 접시
파운더리 채플과 웨슬리채플에서 1700년대 사용했던 현금 접시를 기증 받았다.

담임목사 동정



- 5/9-14 서울남연회 감독.감리사회 영국감리교회 초청 연수
- 5/15 장로취임예배 배광교회 장로취임예배
- 5/18 UMC 버지니아연회 방문단 JSA 방문
- 5/20 서울남연회장로부부영성수련회
- 5/22 웨슬리 회심주일
- 5/22,25 송파지방 웨슬리회심기념성회
- 5/26 해남새롬교회 봉헌예배
- 5/27 총회이단대책위원회
- 5/29 유아세례 서울연회 도봉지방 웨슬리회심 기념성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여선교회총연합회 〈해남새롬교회〉 봉헌



광림교회 여선교회총연합회(회장 이화열 권사)는 5월 26일(목)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기독교대한감리회 해남새롬교회의 봉헌예배를 드렸다. 이날 봉헌예배에는 김정석 담임목사, 호남특별연회 박용호 감독, 이호군 목사(해남새롬교회 담임목사)와 광림교회 여선교회원 70명과 새롬교회 성도 100여명이 참

석했다. 트리니티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한 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주님이 쓰시는 교회(행 13:1~3)는 예수님의 비전으로 간직된 교회, 예배와 구제가 살아있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라”고 했다. 또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광림교회 여선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뜨겁게 헌신함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해남새롬교회는 1986년 광림교회 여선교회에서 건축 봉헌했다. 그 당시 여선교회 임원 중 3명과 박관순 사모는 전라남도 해남지방에 교회 부지를 구입하여 감리교가 이단시 되던 지역에 감리교의 부흥과 선교의 일환으로 이듬해 건축하여 교회를 봉헌했다.

33년이 지난 2020년, 해남교회가 작고 나서 다시 지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여선교회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 봉헌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21년도에는 건축헌금 후원을 위해 임원들의 씨앗헌금으로 시작하여 봄 가을을 통해 총 10회 미니마켓 형식의 바자를 열어 선교회원들의 헌신을 이끌어 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64개체 선교회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교모임과 선교헌금 모으기로 건축비용 총 6억 5천 3억 9천을 후원하여 이날 봉헌하게 되었다.



이화열 권사는 “이 일을 통해 여선교회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할 동력을 얻었고, 선교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으며, 2022년 동탄광림교회 봉헌에 7억 헌금을 용기 있게 작성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감리교가 부흥되지 못했던 삼남지방(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은 광림교회의 교회봉헌을 계기로 2020년 호남특별연회라는 새 연회가 생길만큼 그 열매가 컸음도 광림교회가 하나님께 돌릴 큰 영광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백명순 기자

실업인선교회

〈힐링 버스킹 음악회〉 밀레니엄 광장에서 열려

선교회원들, 성도들과 함께하며 위로와 희망 전해



지난 5월 15일(주일) 광림교회 밀레니엄 광장에서는 '힐링 버스킹 음악회'가 열렸다. 광림 실업인선교회(위원장 권후원 장로) 주최로 열린 음악회는 오랜 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공연은 실업인선교회 회원들의 재능기부와 객원 바이올리니스트 KoN, 소프라노 안젤라 강 등 다양한 출

연진들이 버스킹으로 모여 함께 연주하며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자바이올리니스트 KoN, 소프라노 안젤라 강, 색소폰 이현두 권사, 오카리나 임영실 집사의 솔로 연주와 실업인선교회 오기즈 팀과 사랑부 성도들의 오카리나의 멋진 하모니는 교회 구석구석으로 퍼지며 오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또 이현두, 강경희 권사 부부의 색소폰 연주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눈길을 사로잡았다.

KoN과 안젤라 강은 앵콜 송으로 'Endless Love'를 듀엣으로 연주하며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 주며 대미를 장식했다.

KoN은 지난 주말까지 뮤지컬 '지붕위의 바이올린'의 주연 배우로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섰으며, 일본 공연 등의 바쁜 일정을 앞두고도 기꺼이 자원하며 재능기부를 해주었다. 독일과 이태리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안젤라 강 역시 국내외의 여러 일정 중에

도 주일이면 실업인선교회 회원으로서 함께 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은 긴 코로나로 교회에 오면 각자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야했는데 교회마당에서 음악소리가 들리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며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현두 권사(실업인선교회)

사회사업위원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광림교회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최제환 장로)는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말씀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매월 셋째 주일에는 감사나 목회자를 초빙해 예배와 율례회를 가지며, 남·여선교회 등 교회의 여러 기관들과 상호간에 협력하여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사업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시 보육원생들의 연말학예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어버이날 행사로 농촌자선음악회를 개최하고 다문화가정 8쌍의 무료결혼식을 열었다. 또 비행청소년 교회학교인 로뎀 청소년학교 학생들을 국제비전랜드에 초청하여 비전캠프를 열어 주었으며 광림교회 청년부와 손잡고 이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멘토링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도록 도와 주었다.

사회사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활동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돌봄 행사이다. 이 행사

는 그동안 매주 수요일 새벽 행하여 졌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매월 한차례 하다가 최근에는 격월로 하거나 또 특별한 날에 사랑나눔 행사를 갖는 것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다. 매번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와 교회에서 준비한 용돈과 빵 등을 받아 가는데 이달에는 5월 8일 어버이주일 새벽에 행사를 가졌으며 다음에는 7월달 첫째 수요일인 6일 갖기로 하였다.

최제환 장로(사회사업위원회 위원장)는 "그동안 사회사업위원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가 펼치는 선교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고자 한다. 최근 강원도 산불이나 우크라이나 선교사에 대하여 후원금을 전달하였으며, 동탄교회 건립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려고 한다. 행사에 직접 나와 봉사해 주는 회원들과 물질적으로 동참해 주는 사회사업위원회 회원들에게 모두 감사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3부 예배 헌금송

감사의 마음을 담은 연주

몽골 피아니스트 바트몽흐 칭바트



지난 5월 22일(주일) 광림교회 3부 예배 헌금송으로 몽골 대표 피아니스트 바트몽흐 칭바트의 피아노 연주가 있었다. 찬송가 539장 <네 예수께 조용히 나가>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혼신을 다해 연주하는 칭바트의 모습은 광림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전하며 감동을 주었다.

그는 몽골의 유명한 음악 작家的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몽골의 실력자들 밑에서 음악 작곡자로 훈련받았으며, 몽골의 유명한 밴드 Niciton의 피아니스트로 활동해왔다. 특별히 미국가수 Aretha Franklin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약식에서 부른 <My Country 'Tis Of Thee>를 작곡했다.

몽골은 간염 고위험국으로 비위생적인 물이나 음식, 오염된 주사바늘이나 혈액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감염 퇴치를 위해 몽골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몽골의 간암 사망률은 세계 1위이며 몽골 암환자의 40%가 간암환자라고 한다.

칭바트는 10대 때부터 B형간염 보균자로 간

경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치료를 위해 오랜 시간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동분서주했지만,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광림미션센터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광림교회에 알렸으며, 광림교회는 주 몽골 대한민국대사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2019년 12월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간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수술 후 칭바트는 "종교는 다르지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 주신 광림교회와 김정석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완치되면 광림교회에서 피아노 연주로 고마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몽골 가수인 부인의 간을 이식받고 약 2년이지만 지금, 약속한 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광림교회를 찾아온 칭바트는 "찬양연주로 광림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2년 전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정순 기자

청년부 BOAO 전도팀, LBS 찬양팀 콜라보

잠원 한강공원에서 버스킹으로 복음 전도



광림교회 청년부 보아오(BOAO) 전도팀은 LBS(LFC Bible School) 찬양팀과 함께 지난 4월 23일(토)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한강공원에서 버스킹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4주간 압구정 일대에서 거리 전도를 했고, 특별히 23일에는 잠원 한강공원에서 복음의 내용을 담은 찬양을 준비하여 공연을 실시하며 이후 공원에 있던 200여명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 '사랑의 이야기', '어둔 날 다 지나고' 등 청년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8곡의 찬양으로 복음을 전했다.

버스킹을 위해 함께 동역하게 된 LBS 찬양팀은 거리전도팀의 버스킹 전도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4월 18일부로 해제된 거리두기로 인해 한강으로 모여든 인파 속에서 전도팀과 찬양팀은 200여명의 사람들에게 전도지와 초콜릿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반응을 얻은 버스킹으로 예배 시간을 물어보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용기를 얻은 청년들은 이후 담대하게 준비했던 전도지를 200여명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LBS 찬양팀원 박현서 청년은 "이번 한강 버스킹 전도를 통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시선으로 보고 반응이 안 좋으면 어쩌나 걱정한 부분이 있었지만, 막상 찬양이 시작되고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차분하게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고, 당일 버스킹에 참여했던 이재민 형제는 "처음으로 버스킹을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버스킹을 하면서 옆에 시민분들께서 오셔서 같이 찬양을 불러주셔서 많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부의 BOAO 전도팀은 계속하여 거리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분부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리로 나설 때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중고등부 야외예배 <우리 다시 함께>



광림교회 중고등부에서는 4월 총력전도 주일 행사에 이어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는 5월 둘째주 토요일에 함께 모여 중고등부 야외예배를 드렸다.

중고등부 야외예배는 지난 5월 14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진행되었다. 새친구 초청과 더불어 그동안 교회와 멀어졌던 학생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함에 중점을 두고 준비한 중고등부 야외예배에는 새친구 46명을 비롯하여 중고등부 학생과 교사, 교역자 등 총 192명이 참석하였다.

남양주에 위치한 비전랜드까지의 이동은 3대의 대형버스와 차량을 이용하였다. 도착 후 참석자 전원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부서별로 두 시간의 체육활동을 가졌으며 바비큐 파티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야외예배를 2년 반 만에 나갔어요.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때 큰 감동이 있었어요. 이번 예배를 통해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기뻐요. 바비큐도 정말 맛있었고요. 자주 야외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중등2부 야엘)

"하나님과 친구들과의 교제를 모두 경험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야외에서 마음껏 축기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프로그램, 음식, 경품 추천까지 완벽했던 시간이었습니다."(고등1부 송하민)

박순옥 교사(고등2부)는 "오랜만의 중고등부 야외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즐겁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게 천국이 아

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해 하던 아이들이 즐겁게 운동하며 함께 땀 흘리고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막히고 눌러있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며 보낸 만나절의 시간 동안 귀한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중고등부 야외예배의 참여 소감을 밝혔다.

광림교회 중고등부 김성산 목사는 이날 학생들에게 '우리 다시 함께'라는 제목으로 "스웨덴의 도시 말뫼가 '말뫼의 눈물을 딛고 '내일의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인도하실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을 품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며 말씀을 전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 말씀이니라"(렘 33:10-11)

박희윤 기자

신앙 간증

함께하는 곳에 은혜

저는 청년부에서 속회라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 제 신앙이 성장했으며 또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속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특히 '함께함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부에 처음 출석했을 당시엔 속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일대일 관계이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마음이 닫혀있었기에 속원들 또한 다른 사람들 듣기 좋게 이야기들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라 저 혼자 판단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었고, 그들에게 공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가지 않았던 속회에 참석할 날 나눔 시간에 함께하는 속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저와 매우 비슷한 신앙적 고민을 가졌던 한 속원이 어떻게 그 고민이 해결되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타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너무나 제게 필요한 이야기였고,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었고, 또한 한 곳에 갇혀있던 제 생각을 깨뜨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속회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속회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타인의 삶과 신앙 이야기에 귀 기울여듣기 시작했고, 귀와 마음이 열리니 마음으로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서로가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때 중보의 힘을 배웠고 또한 섬김을 배웠습니다. 나아가 속원들 각자의 삶과 신앙적 고민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을 때 그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하심과 사랑의 모습을 함께 모이는 속회라는 자리에서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속회를 통해 또래의 청년들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삶과 신앙을 나누는 것이 큰 기쁨이며 속회 안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예배만 참석하고 속회 안 나간다고 크게 화내실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속회에 나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신앙생활은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속회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신 신앙적 인연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연들과 함께 세상에서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성모 교구장(청년부)

목회현장

세겹줄로 한 영혼을 세우는 3선교구



선영진 목사(3선교구)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나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

3선교구는 중랑구, 동대문구, 노원구, 구리, 남양주, 가평, 청평, 춘천, 하남, 광주, 덕소, 양평, 홍천, 여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선교구의 목회현장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 성도간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선교구입니다. 교회에서 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교구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카풀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5월에 '수요 동행프로젝트'를 가졌습니다. 수요치유의 신학에 삼삼오오 카풀로 오고가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도간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은혜의 강물입니다. 가정 심방을 다니며 3선교구 안에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속회마다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님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눈물 지으셨던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흐르는 강물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세겹줄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3선교구에는 강력한 세겹줄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Above all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붙드는 개인의 신앙이었습니다. 둘째로, Band 서로를 붙들어주는 속회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광림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성도들은 속회로 적극적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번도 쉬지 않은 속회도 있고, 어떤 상황에도 모이고자 힘썼던 속회지도자와 속원들이 계셨습니다. 셋째로, Connection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이었습니다.

3선교구는 '온라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성지를 걸으며, 다시 성전으로"라는 주제로 2월 12일~5월 7일까지 유튜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여 성도님들이 다시 성전으로 걸음을 옮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지순례의 마지막 일정으로는 선교구 전체모임을 '행복한 순례자'라는 주제로 5월 14일에 국제 광림비전랜드에서 개최하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구 임원들이 정성껏 기도하며 준비하신 기도회, 바비큐식사, 체육대회를 하며 3개월간의 순례여행을 마쳤습니다. 세겹줄로 한 영혼을 세우는 3선교구는 힘써 하나님을 붙들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며 돌봄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선교구가 되겠습니다.

광림남교회

5월, 교회학교에 활력이 넘쳐요



광림남교회 교회학교는 5월, 한 달 동안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일은 유년 초등부의 2부와 3부 대예배 헌금특송이 있었습니다. 예전 어린이 주일이 되면, 주일 2, 3부 예배 시간 아이들의 찬양의 소리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아이들의 찬양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어린이들의 찬양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

송은 많은 성도님들께 감동을 전달해드린 유년 초등부의 찬양이었습니다.

둘째 주일은 중고등부와 유아 유치부의 아버지 주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주일 2, 3부 예배가 마친 후 중고등부의 꽃 나눔이 있었으며, 특별히 3부 예배 후에는 유아 유치부의 율동과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아 유치부의 율동을 통해 아이들의 작은 몸짓과 찬양으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귀여운 매력을 보여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저녁예배에 오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세례 예식을 거행하셨고, 4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일은 특별히 주일 저녁예배를 청년부 주관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준비 찬양은 청년부 여디디야 찬양팀에서 인도하였

으며, 청년부의 특송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디디야와 청년 콰이어를 통해 풍성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며, 이 시간을 통해서 청년부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째 주일은 중고등부에서 삼삼한데이(삼겹살 파티)를 가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학업과 시험으로 지친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삼겹살을 나누며 식탁 공동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일들을 통해 광림남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많이 뿌려지고, 결실을 맺는 귀한 5월의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한준구 전도사(광림남교회)

6선교구

자연속 야외예배로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



지난 5월 21일(토) 6선교구는 광림수도원 예배소 광장에서 야외예배를 진행했다. 과란하늘과 푸른 녹음이 물든 5월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16, 17, 18교구 성도들은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기쁨을 만끽했다. 새신자를 포함해 1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박중섭 목사는 '시글락의 사람들(삼상 27:5-7)'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시글락에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해결된다. 6선교구가 시글락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며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시작은 단순했지만 과정은 은혜였고 결과는 감사였다.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선교구 식구들을 한 자리로 모이게 했고 앞으로도 하나 되어 부흥하는 선교구가 되자"라고 야외예배를 마친 소감을 말했다.

예배를 마친 후 성도들은 기도공원을 걸으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감사하며 함께 사진도 찍고 서로 교제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다. 이후 11개의 기도처 중 3군데 기도처에서 박중섭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기도를 하며 3년 동안 코로나 지친 영혼이 치유되는 귀한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2부 순서로 '임선주 집사 찬양'의 시간을 진행했다.

포항 영일대 바닷가에서 거리찬양을 하고 있는 임선주 집사는 뛰어난 실력과 진실성 있는 노래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마지막에는 목사님의 진행으로 게임과 경품추첨 행사를 가지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야외예배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은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일상에 지친 심신을 새롭게 하고, 힐링 하고 재충전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6선교구로 화합하여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순종하는 모범적인 선교구로 거듭나길 다짐했다.

백명순 기자

K.S.E.C.

<광림평생교육대학원> 재개강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SEC(위원장 성은경 장로) 문이 활짝 열렸다. 2년여 동안 모임을 할 수 없었던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2022년 1학기 KSEC(광림평생교육대학원)의 재개강으로 수강을 기다리던 성도들은 반가워하고 있다. KSEC(Kwanglim Senior

Education Center)는 광림교회 성도들은 물론 지역사회와 타교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새로운 커뮤니티의 장으로, 자칫 외롭거나 무료해지기 쉬운 노년의 삶에 활력과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평생의 배움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학기 교육일정은 5월 12일~7월 14일이며 매주 목요일 10시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5층에서 진행된다. 수강생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완료한 분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생들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오전 특강을 듣는다. 이번 학기 특강은 안철우 교수의 신앙간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자치료', 지애리 권사의 국약산책 가야금연주, 한용근 교수의 한-중 관계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주제의 유익한 강의를 많이 준비되어 있다. 실내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6월 9일, 7월 7일에는 야외

학습도 예정되어 있다. 오후에는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한 분반 활동이 진행된다. 오후 1시에는 바른몸운동, 줌바댄스, 라인댄스, 하모니카, 인문학 강의를 들을 수 있고 2시에는 클래식 공연감상, 필라테스(요가), 한국무용, 3시에는 합창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성은경 장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즐기실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65세 이상 성도님들께서 KSEC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육과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등록문의: 김우성 권사(010-2772-2247)

소현수 기자

영국 감리교회 초청, 서울남연회 영국 연수

5월 9일~14일, 웨슬리 채플, 뉴롬, 크라이스트처치 대학 등 방문



영국감리교회 지도부 및 세계선교담당자들과 함께



옥스퍼드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



캠브리지 웨슬리 하우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김정석 감독) 감리사와 분과위원장 등 24명은 영국 감리교회의 초청으로 지난 5월 9일부터 14일까지 영국을 방문했다. 특별히 이 철 감독회장과 김정석 감독이 동행한 뜻 깊은 여행이었으며, 영국 감리교회 지도자들과 만나 코로나 이후 세계 선교 협력과 교류에 관한 많은 논의를 하는 기회가 되었다.

먼저, 존 웨슬리 회심기념 284주년을 앞두고 세인트폴 대성당과 웨슬리 채플을 방문해 제니퍼 스미스 감리사(Jennifer H Smith)의 인도로 성만찬 예배를 드렸으며, 이 자리에서 제니퍼 스미스 감리사는 한국과 영국 두 감리교회의 연결을 위해 노력해준 광림교회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존 웨슬리 목사 시대에 사용하던 납으로 만든 헌금 접시를 선물했다. 당시 런던에서는 감리교회 운동이 대포공장을 빌려 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기 때

문에, 탄피를 두드려 헌금 접시를 만들었는데, 이날 1750년대 사용하였던 헌금 접시를 광림교회에 기증한 것이다.



이날 저녁에는 영국 감리교회의 사무총장인 조나단 허슬러(Jonathan Hustler)와 총회장 소니아 히크스(Sonia Hicks)의 초청으로 영국 감리교회의 지도부 및 세계선교담당자 등 11명과 함께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세 시간여 동안 계속된 모임을 통해 영국과 한국 교회의 문화와 제도적 차이점에 대해 서로 알아

가는 시간이었다. 또한 세속화와 탈종교화 등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당면한 시대적인 과제를 공감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나눴으며, 향후 지속적인 양 교단의 교류에 대한 기대 가운데 2023년 영국 감리교회 지도자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다음날, 웨슬리 형제가 회심 후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브리스톨을 방문했다. 브리스톨은 한국 감리교회의 후원을 통해 리모델링한 감리교회 최초의 건물인 뉴롬과 찰스 웨슬리의 집, 최초의 야외설교 장소인 하남 마운트가 있는 곳이다. 옥스퍼드에서는 옥스퍼드선교대학원(OCMS)의 초청으로 '복음적인 에큐메니컬 선교'에 대한 나눔이 있었으며, 웨슬리 형제가 수학한 크라이스트처치 대학에서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되는 엘리자베스 1세의 성경과 1818년 바질 홀의 한국

여행기 등 고서적을 열람하였다. 마지막 여정으로 김정석 감독이 국제이사로서 있는 캠브리지 웨슬리 하우스에서 제인 리치(Jane Leach) 학장과의 만남이 있었으며, 이 학교의 소개로 장로교 전통을 갖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학을 방문해 장로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존 웨슬리의 친필 편지와 회귀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들의 교단과 신앙적인 배경을 초월한 교류와 연합운동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영국 감리교회의 초청은 그동안 끈끈한 우정을 이어오던 광림교회와 웨슬리채플의 노력으로 성사되었으며, 코로나 이후의 교회 연합과 협력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웨스트민스터칼리지



웨슬리 채플에서의 성찬식



세인트폴 대성당 존 웨슬리 동상 앞



영국 감리교회 초청 만찬(웨슬리 호텔)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룩한 습관”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선교적 과제입니다. 우리 주변의 생태환경을 돌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거룩한 습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

- ▶ 적정온도 유지하기(난방 2℃↓, 냉방 2℃↑)
- ▶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사용하기
- ▶ 전기밥솥 보온 기능 사용 줄이기
- ▶ 냉장고 적정용량 유지하기
- ▶ 물은 받아서 사용하기
- ▶ 텔레비전 시청 시간 줄이기
- ▶ 세탁기 사용 횟수 줄이기
- ▶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
- ▶ 고효율 가전 제품 사용하기
- ▶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 ▶ 비데 절전기능 사용하기
- ▶ 절수 설비 또는 절수 기기 설치하기
- ▶ 창틀과 문틈 바람막이 설치하기



수송

-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 ▶ 대중교통 이용하기
- ▶ 자동차 타어어 공기압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 ▶ 전기, 수소 자동차 구매하기



자원순환

- ▶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실천하기
- ▶ 종이 타월, 핸드 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 ▶ 청구서, 영수증 등의 전자적 제공 서비스 이용하기
- ▶ 장바구니 이용하고 비닐 사용 줄이기
- ▶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 ▶ 멀티슈 덜 쓰기
- ▶ 음식 포장 시 1회용품 줄이기
- ▶ 인쇄 시 종이 사용 줄이기



소비

-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 배달음식 줄이기
- ▶ 저탄소 제품 구매하기
- ▶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이용하기
- ▶ 과대포장 제품 안 사기
- ▶ 품질이 보증되고 오래 사용가능한 제품 사기
- ▶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 구조로 된 제품 구매하기
- ▶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 이용하기
- ▶ 중고제품, 재활용품 이용하기
- ▶ 안 쓰는 제품은 나눠쓰기



지구 살리기

- ▶ 나무 심기 운동 참여하기
- ▶ 가정 내 화초 심고 가꾸기
- ▶ 기념일에 내(가족) 나무 심어보기

